

스승의 그림자

魏 幸 復

(全北大 中語中文學科)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할 때 학생들이 나를 부르면서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저이기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시간 강사의 신분엔 있었던 나로서는 교수라는 호칭이 낯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서먹한 거리감까지 느껴졌다. 교수라는 호칭이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구분지어 지칭하거나, 그들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써 주면 이는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구분지어 부르는 것이고 또한 예우를 해주는 셈이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니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진 것이다.

학생들이 나를 ‘교수님’이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성까지 붙여서 ‘...교수님’이라고까지 부르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왜 그들이 교수라는 칭호로서 우리를 부르게 되었는가에 있다. 혹시 우

리가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교수님’이라는 부름에 보다 기꺼워 하지 않았는지? 대학 교수를 지칭하면서 누구누구 박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게 되는 생각은 지나치게 허세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교수 상호간에 ‘교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볼 때에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학생들이 우리를 교수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다정하면서도 가깝게 느껴진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 은사님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호칭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교... 아니 선생님’이라고 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모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지금까지 필자가 단순한 호칭 문제를 가지고 지루하게 이야기를 끌어 온 까닭은 요즘 대학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 및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상 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스승과 제자는 결코 신분상의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학문상의 문제에서는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상호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수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뒤엎어지지 않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있어서의 스승과 제자는 같이 부대끼고 고민하면서 참된 것들을 밝혀 나가는 동반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교수가 부여받을 수 있는 권위 또한 신분이나 나이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그가 갖추고 있는 인격과 학식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교수의 권위 확보는 지금의 대학이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 운동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고 학내·외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의 행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풍조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공권력의 저지에 부딪치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투철함을 보임으로써 교수들의 우려와 안타까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불러 일으켰다. 학내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학생들의 육탄 공격을 저지해 줄 힘의 보호막이 없는 교수들은 전진공공해야만 했었고 변해 버린 세태를 한탄해야만 했다. 교수의 연구실과 총장실이 점거될 때마다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 당할 때마다 심지어 강단으로부터 떠날 것까지도 강요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뽐어내는 것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이었던 지도 모른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던 때가 있었다. 스승의 말은 그대로가 진리였으며 그 가르침을 어기거나 비판하려면 심각한 회생을 각오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별로 좋았을 것같지도 않다. 스

승이야말로 제자된 사람의 귀감이어야 했으며 만인의 師表이어야 했으니 그 노릇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대학 선생 노릇’은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아니다. 쉽게 여기고들 있는 것같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제자들은 다시 스승의 그림자조차도 경외스럽게 대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게 될 것인가? 참다운 교편을 확립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편을 올바르게 확립시키려면 교편의 개념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다. 교편이란 ‘교육을 지켜 나갈 권리’일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며,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법의 한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편이란 교육자의 권위와 위신을 뜻하는 말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교편에의 도전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보다는 학교 밖으로부터의 도전과 그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대응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 당국자는 최소한의 필요한 요식 행위만을 거쳐 이를 충실히 수용해 왔으며, 일반 교수들은 무기력한 방관자로서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 기술의 발달과 민주화 촉진 운동으로 인해 대학은 보다 많은 기능을 맡게 되었다. 산업 기술의 발달은 대학으로 하여금 산업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촉진은 대학에게 인간들의 보다 나은 삶의 확보를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리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젊은 대학생들은 불의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만큼의 희생을 치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교수들이 취했어야 할 행동은 밖으로부터의 횡포와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감싸안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했다. 고개를 돌린 채 외면하거나 남보다 더 무서운 표정을 하고서 학교 밖으로 내쫓지는 말아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교권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학생들은 진리와 정의의 실천이라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보다 가치롭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그 협상 대상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수일 경우에는 무모한 힘의 행사가 아닌 지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폭력은 명백히 지적되어야 하며 엄하게 꾸짖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꾸짖음으로서 학생에게는 극형에 해당하는 제명을 택한다면 이는 준엄하게 닦아져 너그러움을 보이는 '스승다움'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학생들이 세번씩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극단적인 처벌은 피했어야 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떠올려도 그렇고, 서울대를 이어 몇 개의 대학

이 줄지어 교권 수호를 선언했음을 떠올려도 마음 한 구석이 개운하지 않음은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의 교수들이 참담하게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외부의 갖가지 폭력으로부터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 나가겠다는 결의이다. 외부의 억압에 굴종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스승, 국학이세하지 않고 스스로의 언행을 일치시키며 참됨과 의로움을 밝혀 나가는 스승, 부모처럼 넓고 따뜻한 품을 내주는 스승의 모습을 보일 때 교권은 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권은 학생들의 무조건적 추종 위에 세워지는 교수의 권위나 위신이 아니며, 학생들과 대결하는 가운데 수호해야 하는 대상은 더욱 아니다. 교수와 학생이 힘을 합쳐 애쓸 때만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교권은 보호되어질 수 있다.

격랑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대학을 보면서 마음 편할 대학인은 없다.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 학기만은 평온한 가운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운영되면서 교수와 학생이 더욱 연구와 강의에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스승과 제자가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세워진 교권 위에서 각각의 일에 매진하는 새 학기를 기대해 본다.

똑바로 가는 스승의 그림자를 조심스럽게 뒤쫓는 제자들의 모습이 교정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과욕일까? *